

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20/100

#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21학년도 수완 실전 3 197~198p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독일의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체계 이론을 주창했다. 그는 복잡하게 분화된 현대 사회에서, 세계의 다양한 복잡성을 포착하여 축소시켜 처리하는 것을 사회학의 목표로 삼았다. 루만은 ‘의미’를 자신의 이론에서 기본 개념으로 설정하는데, 사회학에서 의미를 기본 개념으로 제안한 것은 루만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이 개념은 베버의 고전 사회학에서 사회학의 영역을 획정하는 데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베버에게 의미는 행위자 자신이 의도하는, 즉 그 자신의 관점에서 행위가 갖는 의미이다. 따라서 베버는 일차적으로 의미를 행위자가 의도한 주관적인 것으로 본다. 그런데 베버의 의미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행위자의 행위는 비록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수반되고, 그 의미가 그 행위에 의해서 생성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상대방에 의해서 이해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버는 ‘주관적’ 의미를 ‘객관적’ 의미와 구분한다. 베버의 이론에서 객관적 의미는 행위 주체의 의미 구성 과정을 배제함으로써, 즉 관찰자의 해석과 이해를 통해 형성된다. 물론 이때 행위자가 의도한 의미는 관찰자가 해석하는 의미로 축소되지 말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결코 사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관찰자가 관찰한 행위를 객관적 해석 틀에 정리하듯이, 행위자도 관찰자와 공유하는 해석 틀을 바탕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베버는 주관적 의미와 객관적 의미의 구분을 통해 사회적 의미의 생성을 설명하면서 ‘사회적 행위’ 개념을 제안한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행위는 행위자가 의도한 의미에 따라 다른 사람의 행위와 연관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끌어 내는 행위로 정의된다. 즉 사회적 의미는 행위자와 관찰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이해된 것으로, 사회적 행위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의 의미 개념은 행위자의 실행을 통해 표현된다. 그렇지만 루만은 그러한 접근 방법은 기본적으로 의미를 주체가 구성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주체와의 관련 속에서만 논의하여 비과학적인 것으로 보게 된다는 점에서 비판한다. 이와 달리 의미 개념을 주체와 분리시켜 다루게 되면, 개별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의미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루만은 행위 주체로부터 독립되어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의미를 상징함으로써 세계의 복잡성을 축소시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루만의 의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험’과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 세계와의 관계에서 체험은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통보받기 때문에 행위로 현재화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체험의 과부하는 복잡성과 유연성을 갖게 된다. 복잡성은 다양한 체험 중에서 실천적인 선택을 통한 행위를 강요하고, 유연성은 행위의 결과가 주는 실망의 위험을 허용한다. 이때

유연성이란 행위자의 기대와는 다르게 행위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런 체험의 과부하를 처리하는 수단이 바로 의미이다.

의미는 어떤 사태의 내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성을 축소하고, 체험을 처리하는 기능을 하는 수단이다. 의미는 의식(심리 체계)이 체험을 선택하여 행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고, 이때 선택되지 않은 것은 폐기하지 않고 잠재화하는 방식으로 체험을 처리한다. 결국 의미를 통한 체험 처리는 복잡성의 축소와 보존을 동시에 실현하여, 선택되지 않은 것을 의식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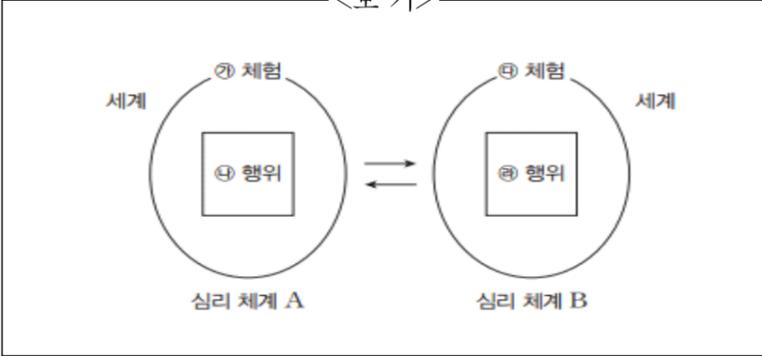
루만의 체험과 행위 구분은 체계와 연관을 ㉠가지는 개념이다. 심리 체계 A(사람 A)의 행위는 심리 체계 B(사람 B)에 의해 체험될 수 있다. 이때 심리 체계 A가 자신의 체험에서 통보된 복잡성을 축소(선택)하여 행위를 통해 심리 체계 B에게 통보하면, 심리 체계 B는 수신된 체험의 복잡성을 축소하여 행위를 통해 다시 심리 체계 A에게 통보한다.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은 의미를 통한 세계의 구성을 매개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루만의 체계 이론에서 의미는 행위자가 의도하는 어떤 목적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루만에게 행위는 체험 처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특정 시점의 사건이다. 이렇게 심리 체계는 의미를 수단으로 하는 선택을 통해 복잡성을 축소하고 가능성을 현재화하여 행위하며, 나머지 가능성을 잠재화한다.

2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루만은 의미를 주체의 실행에 의해 표현되는 것으로 본다.
- ② 루만에게 사회학의 목표는 세계에서 통보되는 다양한 복잡성을 축소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 ③ 루만은 의미를 통해 현재에는 배제된 체험이 미래에는 선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 ④ 베버에게 객관적 의미는 관찰자의 해석을 통한 것으로, 행위자의 의미 구성 과정은 배제된다.
- ⑤ 베버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부여한 의미라 해도 사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관찰자와 공유하는 지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21. <보기>는 윗글을 이해하기 위해 찾은 루만의 ‘의미’ 관련 자료이다. 탐구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이 지닌 우연성으로 인해 ㉡는 심리 체계 A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 ② ㉠과 ㉡는 다양하고 복잡한 세계로부터 각 심리 체계로 통보되는 것으로, 현재화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 ③ ㉠과 ㉡는 복잡성과 우연성을 지닌 것으로, 의미는 ㉠과 ㉡를 축소, 선택하여 처리함으로써 ㉢와 ㉣를 가능하게 한다.
- ④ 심리 체계 A의 ㉡는 심리 체계 B에게 ㉢로 통보되고, 심리 체계 B는 의미를 통해 이것을 축소하여 다시 심리 체계 A에게 통보한다.
- ⑤ 심리 체계 A에서 의미를 통해 선택되지 않은 ㉠은 심리 체계 B에게 잠재화되어 ㉣로 남아 있게 된다.

22. 윗글의 ‘베버’와 ‘루만’이 <보기>에 대해 보일 반응을 추리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동학 농민 운동’은 1894년 전라도 고부의 동학 접주 전봉준 등을 지도자로 삼아,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하여 전개되었다. 음력 1월 10일, 전라도 고부 농민들이 군수의 가렴주구를 견디다 못해 들고일어났고, 동학 접주인 전봉준이 이끈 농민들은 군수 조병갑을 몰아내고 관아를 점령했다. 사태 수습을 위해 정부에서 보낸 관리가 오히려 농민을 탄압하면서 고부 봉기는 농민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농민군은 황토현에서 전라도 감영군을 대파했고, 정부가 보낸 중앙군마저 물리치고 전주성을 점령했다. 다급해진 정부는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했고, 조선의 상황을 주시하던 일본도 군대를 보냈다. 농민군은 청나라와 일본이 간섭할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고 전주성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일본군은 조선에서 철수하지 않고, 조선을 압박했다. 조선 정부를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 2차 봉기가 일어났고 전라도를 넘어 충청·경상·황해·강원도에서도 봉기에 참여했다. 전봉준이 이끈 농민군은 일본군과 관군의 연합 부대와 공주 우금치에서 혈전을 치렀지만 결국 패했다.

- ① 베버의 입장에서는 전라도 고부의 봉기가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한 사회적 행위라는 측면에서, 지배층의 가렴주구에 대한 동학교도들과 농민들의 저항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베버의 입장에서는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된 동학 농민 운동이 충청·강원 등으로 확산된 것에 대해, 의미가 전라도를 넘어 다른 지역 사람들의 행위와 연관되면서 ‘사회적 행위’를 확대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군.
- ③ 루만의 입장에서는 전라도 고부에서의 봉기를 당대의 부패와 모순 해결이라는 ‘의미’에 의해 선택되어 현재화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루만의 입장에서는 전주 화약을 외세 개입 반대라는 ‘의미’를 매개로 선택된 행위로 보면서 조선 내부의 다른 문제는 잠재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루만의 입장에서는 일본군과 관군 연합 부대의 승리는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의 개입에 대한 반대가 ‘의미’를 매개로 배제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23. 윗글의 ‘루만’의 이론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갑은 시험이 끝나고 을과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함께 영화를 보러 갔다. 영화를 보는 중에 남녀 주인공의 이별 장면이 나오자, 갑은 눈물을 흘린다. 영화보다 갑을 더 신경 쓰던 을은 그런 갑을 위로하면서 손을 잡아 준다. 하지만 앞좌석의 관객은 영화 시작부터 계속 졸고 있다.

- ① 갑과 을이 영화를 보러 간 것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이별 장면에서 갑이 슬픔을 느낀 것이라면 눈물을 흘리는 행위는 슬픔이라는 ‘의미’에 의해 선택된 것이겠군.
- ③ 갑의 눈물은 을에게 ‘체험’으로 통보되고, 을은 이에 대해 위로의 ‘의미’로 ‘체험’을 축소하여 손을 잡아 준 것이겠군.
- ④ 남녀 주인공의 이별 장면은 갑, 을 모두에게 ‘의미’를 통해 축소 처리되어 선택된 체험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졸고 있는 앞좌석의 관객에게 영화 장면은 심리 체계로 통보되지 않은 ‘세계’에 해당하겠군.

24. 문맥상 ㉠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는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다.
- ② 서점에서 책을 잔뜩 사 가지고 왔다.
- ③ 재활용품을 가지고 작은 책상을 만들었다.
- ④ 다른 시민 단체와 교류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 ⑤ 어제 저녁에 환경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